

백종현 교수님의 정년퇴임을 축하드리며

박찬국

(서울대 철학과)

백종현 교수님께서 정년을 맞이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것이 나만의 느낌만은 아닌 것 같다. 백교수님께서 정년을 맞는다는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것을 보았다. 백교수님은 젊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패기와 의욕에 넘치시고 예리함을 잃지 않고 계시다. 나 자신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백교수님의 정년 소식을 믿기 어려워하는 이유가 아닌가 한다.

나는 학부생 때 처음으로 백교수님을 뵈었다. 그 당시 조교로 계셨던 백교수님은 내가 교외 장학금을 받도록 힘을 써주셨다. 그 때 난생 처음으로 장학금이란 것을 받아보았다. 그 후로도 백교수님께 여러모로 많은 은혜를 입었다. 백교수님은 내가 가장 덕을 입은 분들 중의 한 분이지만 나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백교수님은 그렇게 기억될 것 같다. 백교수님은 매사에 정확하고 빈틈이 없으셔서 언뜻 보기에는 차갑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누구보다 따뜻한 정과 의리에 넘치시는 분이다. 스승의 날이면 백교수님의 연구실 문 앞에 꽃다발들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백교수님께 덕을 입은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증거라고 여겨진다.

그 다음 백교수님을 뵈는 것은 대학원 수업시간 때였다. 당시 백교수님은 서울대에 부임하기 전이었다. 백교수님은 『순수이성비판』을 강의하셨다. 교수님 특유의 정확함과 예리함 그리고 섬세함이 물씬 배어나는 강의는 내가 들었던 대학원 강의 중 가장 인상 깊었고 가장 많은 것을 얻었던 강의였다. 교수님은 단어 하나하나도 대강 넘어가지 않고 꼼꼼하게 짚어가셨고 우리에게 철학 텍스트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모범적으로 보여주셨다.

워낙 치밀하게 텍스트를 독해하다 보니 진도는 많이 나갈 수 없었지만 교수님은 몇 페이지의 강독만으로도 『순수이성비판』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셨다. 교수님의 강의는 상세하면서도 폭이 넓었다. 교수님이 강의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뇌리에 강하게 남아 있을 정도로 나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 서울대 교수로 부임한 후 나는 만나는 학생들마다 백교수님의 칸트 강의를 꼭 들어볼 것을 권했다. 백교수님의 강의에서 받은 감동 역시 나만이 느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백교수님은 2007년에 서울대 교육상을 받으셨다. 나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백교수님의 강의를 특출한 강의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내가 서울대 교수로 부임한 후 백교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나는 백교수님을 더욱 잘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백교수님은 서울대에만 계시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분이라는 생각을 자주 하곤 했다. 백교수님은 나라 살림을 맡으셨어도 탁월하게 운영하셨을 것이다.

백교수님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대해서 강한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가지신 분이다. 백교수님이 서울대 철학과는 물론이고 서울대 전체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셨던 것도 무엇보다도 이러한 남다른 책임감과 주인의식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백교수님은 후배 교수들에게도 항상 서울대학교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질 것을 강조하곤 했다. 이러한 강한 책임의식과 주인의식 외에 백교수님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행정가적 능력을 갖추고 계시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백교수님은 정확함과 치밀함이라는 행정가적 자질 외에도 기획력과 추진력이라는 지도자로서의 자질도 갖추신 분이라고 생각한다. 백교수님은 남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구상하시면서도 단순히 아이디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일이 종료될 때까지 진두지휘하셨다. 백교수님이 추진하시는 일은 항상 규모가 크면서도 어느 한군데 누수가 되지 않고 빈틈없이 추진되었다. 백교수님이 일하시는 스타일은 대범하면서도 치밀하다는 생각을 한다. 백교수님은 아래 사람이 해야 할 일은 과감하게 그 사람을 믿고 맡기면서도 전체가 빈틈없이 운영되도록 치밀한 체계를 만드셨다.

백교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본 사람이면 누구나 백교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고 느꼈을 것이다. 학과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인문대학과 서울대 전체의 차원에서 백교수님이 많은 일을 맡으셨던 것도 백교수님의 이러한 비범한 능력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백교수님께서 일을 맡으면 누구나 안심이 되었을 것이다.

백교수님은 학과 차원과 서울대 전체 차원에서 많은 사업의 책임자를 맡으시고 여러 보직을 역임하셨지만, 여기서는 내가 직접 옆에서 함께 했던 사업들 몇 가지만 언급하기로 한다. 백교수님께서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에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하셨던 <토픽맵에 기초한, 철학 고전 텍스트들의 체계적 분석 연구와 디지털 철학 지식 지도 구축> 사업은 연인원 80여명의 박사가 참여했던 공동연구사업이었다. 이 사업은 철학계뿐 아니라 인문학 전체에서도 유례가 없을 정도의 대규모 사업이었고, 철학 연구와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여 철학 지식의 대중화를 도모한 혁신적인 사업이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수행된 많은 연구성과는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문헌정보센터와 네이버를 통해서 인터넷상으로 일반인에게도 공개되고 있다.

국내외 철학계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대규모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었던 것도 무엇보다도 백교수님의 탁월한 기획력과 추진력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이 사업은 당시 아직 교수가 되지 못했던 많은 박사들에게 매년 큰 액수의 연구비를 제공했던 사업이기도 하다. 백교수님은 철학계의 많은 인재들이 교수가 되지 못해서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사정을 안타까워 하셨다.

백교수님이 철학과에 크게 기여했던 일로는 BK 사업을 빼놓을 수 없다. 처음에 이 사업의 토대를 놓기 위해서 많은 회의가 필요했지만 백교수님은 이 회의를 통해서 참신하면서도 현실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으시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탄탄한 토대를 마련하셨다. 백교수님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년에 걸쳐 BK21 철학교육사업단장을 맡아 서울대 철학과 대학원생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마련하였고 또한 대학원생들이 발표자로 참여하는 국제 학술대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서울대 철학과 대학원생들의 연구수준을

크게 향상시켰다.

백교수님은 2년 전부터 인문학연구원장을 맡고 계신다. 인문학 연구원에서도 백교수님은 교수님 특유의 대담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극히 필요한 사업들을 구상하여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다. 백교수님은 특히 인문학도 통일을 대비해야 한다고 보시면서 이와 관련된 학술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다. 이 역시 백교수님만이 기획할 수 있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만 들으면 사람들은 백교수님은 사업만 하느라 연구는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백교수님은 연구에도 남다른 성과를 내셨다. 백교수님은 『존재와 진리 — 칸트 <순수이성비판>의 근본 문제』로 서우철학상을 수상하셨으며, 『서양근대철학』 외 7권의 저서와 번역서가 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고 『철학의 개념과 주요 문제』 외 3권의 저서와 번역서가 문화관광부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또한 세계적인 수준의 논문만이 실릴 수 있는 독일 학술지 『칸트 연구(Kant-Studien)』에 글을 실으셨다. 백교수님의 칸트 연구와 함께 한국에서의 칸트 연구는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또한 백교수님은 칸트 전집을 완역하신다는 목표 아래 칸트의 저술들을 지속적으로 번역하고 계시다. 이 번역은 2002년에 출간한 『실천이성비판』을 필두로 하여 벌써 7권이 쏟아져 나왔다. 백교수님은 거의 2년에 한 권꼴로 칸트 번역서를 출간한 셈이다. 많은 사업을 추진하시면서도 이렇게 끊임없이 연구서를 출간하시는 백교수님의 연구열 역시 남다른 것이다.

그런데 백교수님은 연구와 교육 그리고 사업 외에 풍류에도 일가를 이루신 분이다. 그 분과 노래방을 간 사람이라면 백교수님의 또 다른 면모에 놀라게 될 것이다. 백교수님은 그 분 연세에 걸맞지 않게 최근 가수들의 노래도 다 꿰고 계신다. 퇴임하신 이명현 교수님이 항상 황경식 교수님과 백교수님이 황백악단을 만들면 좋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곤 했을 정도로 백교수님의 노래실력은 출중하다.

백교수님이야말로 서울대 철학과와 역사에 길이 남으실 분이라고 생각된다. 모든 철학과 교수들이 철학과에 대한 백교수님의 혁혁한 기

여를 잊지 못할 것이다. 또한 백교수님이 퇴임하신 후에도 우리 철학과 교수들은 백교수님의 지혜를 빌리고 싶어할 것이다.

백교수님은 여전히 의욕과 패기에 넘치시는 것 같고 건강도 좋으신 것 같다. 백교수님은 퇴임 후에도 특유의 부지런함으로 후학들을 위해서 칸트 번역과 그 외의 연구를 계속하시리라곤 본다. 교수님의 건강과 문운(文運)이 장구하기를 빈다.

2015년 7월 서울대 철학과 교수 박찬국 씀

